

금남로에서

김동영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잇따라 '5+2 광역경제권'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전국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충청권(대전·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5개 권역으로 묶고 강원권과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해 개발한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은 초광역개발권으로 연결된다. 남해안 선벨트와 서해안 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휴전선 인근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등이 그것이다. 참여정부 지방정책의 키워드가 '균형·혁신·분산'이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상생·경쟁·분권'이라 할 수 있다.

윤곽 드러낸 새 지방정책

이 구상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행정구역에 얽매어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배정해 사업이 중복되고 효율도 떨어져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것이다. 전국을 광역권으로 개발해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간의 경쟁과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현실이다.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으면 수도권은 광역경제권 중의 하나가 되고 비수도권은 시장논리에 따라 수도권 및 다른 광역경제권과 경쟁을 벌

정부 '지방 살리기' 의지 있나

여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간접자본과 기술 등 모든 조건에서 열악한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경쟁하고 협력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다. 사람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겨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시킬 뿐이다.

광역경제권의 불균형도 문제다. 영남은 부경권과 동남권 등 2개의 축을 형성하는 반면 호남은 광주와 전남, 전북을 아우르는 호남권 한 곳에 불과하다. 왜 호남이 지방정책에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지

답하기 어렵다. 더구나 호남권에는 경제·생활권이 광주·전남과는 다른 전북까지 포함돼 있어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없다. 벌써부터 J프로젝트의 상당부분이 전북의 새만금사업과 중복돼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같은 권역에서 전남과 전북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광역경제권의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광역경제권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도 없이 경쟁과 상생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무책임하다. '공룡'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광역경제권을 구축하

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실체가 없는 광역경제권은 자칫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재검토기로 한 혁신도시에 대해 "참여정부의 계획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릇에 무엇을 담을 지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릇 자체를 깨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방침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대안은 내놓지 않고 원칙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새 지방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광역경제권 등과 같이 우리나라 지도에 줄을 긋는 것으로 균형발전이 되겠느냐"며 "정부의 정책을 보면 무슨 방법으로 지방을 살리려는 지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혹평했다.

혁신도시 차질 없어야

원희룡 의원은 "혁신도시 문제가 '지방 반란'의 본격적인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한구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 문제와 관련, 정부가 대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집권 여당이 이 정도인데 야당이나 비수도권의 반응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 정부에 지방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의 구심을 갖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지방을 기만해서 안 된다. 아무리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부라 해도 과거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뒤집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없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립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우선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비수도권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정부는 지방의 '반란'이 현실화되기 전에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논설실장> dykim@kwangju.co.kr

시설

막가는 광주시의회 어디까지 추락할 건가

최근 광주시의회의 행태를 보면 풀뿌리민주주의의 대의기관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패거리 자리다툼으로 주먹다짐을 하고, 급기야 성폭행 논란으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선출했다. 이런 시의회 의원들의 막가는 추태는 그들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상임위원 장단을 구성하면서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다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한 자리하겠다는 욕심에 출사기와 편 가르기, 줄타기를 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선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 시의원은 비리혐의로 구속됐다. 이것이 광주시 풀뿌리민주주의의 현주소다.

광주시의회는 전반기 내내 자질 논란과 도덕성 시비에 휩싸였다. 심지어 '집행부의 시녀' '실물의회'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후반기들이어서도 반성은커녕 폭력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광주시의원들이 막가는 처신을 거듭하고 있는 원인은 분명하다. 그들은 시민보다 소속 정당,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먼저 생각한다. 정당의 공천 여부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9명의 시의원 가운데 18명을 독식한 기현상이 바로 그 증거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질이 나 능력있는 인물보다는 자신의 측근을 공천하는데 급급했다. 물론 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가 가능했던 배경은 유권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공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민주당도 명심해야 한다.

광양항 개항 10년 활성화대책 서둘러야

광양항이 내일 개항 10년을 맞는다. 1998년 개항한 광양항은 4선석으로 출발했지만 10년만에 16선석을 운영하며 대형 항만으로 발돋움했다.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 자리 잡으려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 추세는 매우 가파르다. 지난해 172만 TEU를 처리해 개항 당시에 비해 50배 가량 늘어났고, 올해는 195만 TEU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물동량 성장률이 12.4%에 달하고 있다. 한 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올 하반기에 5선석을 추가 착공하는 등 2020년까지 25선석을 갖출 계획이다.

기항국가도 다변화되고 있다. 개항 초기 중국, 동남아가 주 항로였지만 미국과 유럽, 중동, 남미 등으로 다양해졌다. 물동량 창출이 기항국가의 다변화를 낳고 다변화가 물동량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부산항에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광양항은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비롯 기업의 물류시스템, 선사들의 선박운영 방식 등에서 부산항과 비교할 수 없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부산항은 90%를 넘는 장지율을 기록했지만 광양항은 30%대에 그쳤다.

광양항이 기업과 선사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양항체제(Two Port System)로 육성키로 했지만 슬그머니 백지화하고 말았다. 광양항의 경쟁력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광양항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광양항은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항만은 물론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동북아시아 항만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물류시스템 개선 등 활성화 대책 없이는 동북아 허브항만은 헛구호일 뿐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임명재



급남 지하상가에 있는 어느 사진관 앞을 지나는데 '옛날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꿔줍니다'라는 광고가 눈에 띄어 발걸음을 멈추었다. 근엄하신 어르신께서는 영정사진으로 찍으셨는지 빛바랜 흑백사진 속에서 세월을 건너서 그 때 그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계셨는데, 바로 옆에는 똑같은 사진이 온갖 컬러에 채색되어 방금 전에 찍은 것 같은 컬러 사진으로 탈바꿈 되어 있었다. 아주 초보적인 타임머신의 단계인 듯싶었다.

래서 한 핏줄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결코 우리와 함께 섞일 수 없는 존재였다. 외국인과의 결혼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며, 결혼 당사자는 물론 자식들까지 차별의 그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다. 한국인도 이제는 어엿한 세계인이 되었고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외국으로 진출하고 있고, 비슷한 수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컬러의 시대

몸은 아직이지만 사진정도는 얼마든지 과거로 돌아가 그 때 그 순간을 바꾸어 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왜 장황하게 흑백을 컬러사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얘기했느냐면, 그것은 그 만큼 우리 세상이 흑과 백의 시대에서 컬러의 시대로 바뀌었음을 말하고자 함이다.

남과 북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때 우리는 둘 이상의 것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적과 나의 이분법이 아닌 제 삼, 제 사의 방법을 찾아가며 공존의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한민족, 단일민족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다. 그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온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외국인과의 결혼이 이제 더 이상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우리의 국력을 넓히는 기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더 다민족·다인종·다문화가 긍정적으로 어울림이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도시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약사·2005년 12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에어컨 온도 1℃ 내려 에너지 절약 실천을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초고유가 현상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큰 충격이다.

석유나 석탄 등 1차 에너지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전기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8월21일 기록한 최대 수요전력이 올해는 한 달이나 앞선 지난 9월에 기록됐다. 이런 기록은 고온 다습한 날씨 영향도 있었지만, 다른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로 소비가 몰리는 현상이기도 하다. 소비자 입장에서선 난방 등에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하는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과 효율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기가 대체소비재인 셈이다.

최근 1년간 석유제품 이용 비용과 전기요금 간 가격차 때문에 발생한 대체소비량 추정치는 전체 전력소비량의 3.7% 가량인 1억3천534만 kWh정도다. 이 만큼의 전력을

전기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7천359억 원인데 같은 에너지량을 석유제품으로 생산할 경우 8천125억원으로 총본해 그 차액인 9천23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넓게 보면 국가경제의 짐이 된다.

전기요금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해 경제외곡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한층으로 풀리는 에너지 소비 구조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고, 국가경제의 주름이 느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우리 모두가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불감증을 털어내야 한다.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코드를 뽑고, 에어컨의 설정온도를 1℃ 높이고, 다림질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미덕이야말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3차 오일쇼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안선찬·한국전력 전남본부 과장

기고

홍민호



나는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유치 대학생 응원단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 총회에 참가했다. 142만 광주시민의 목소리와 열원을 나의 미약한 목소리에 담기 위해 목이 터져라 합성을 질렀고 태극기를 흔들었다. 그 기억을 생생히 간직한 채, 지난 9일 열린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유치 실패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일이다.

비록 우리는 기쁨의 눈물이 아닌 아쉬움과 비통함의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광주시민 모두 함께했던 그리고 하나 되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었기에 의미가 있었고 아득하다.

또한 이 실패를 통해 광주가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과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이 세계무대에서 얼마나 경쟁적인지, 도시발전

광주 U대회 재도전하자

오갔다. 하지만 그것이 저마다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평가였음은 분명했다.

결국 시민들의 뜻을 모아 2015년 대회에 재도전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유치 효과에 대해 생산과 고용창출 효과와 얼마고 그 수치가 맞는지, 블린지 따지는 데에 집착하는 건 아쉬웠다. 토론자 중 한 명이 말한 것처럼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광주의 세계화라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실패는 결과만 보면 실패지만 과정 면에서는 광주가 큰 도시로 나아가는 귀중한 단초가 되지 않았나 하고 반문해 본다. 대구에서 온 토론자의 말처럼 유치 효과가 없다면 왜 세계의 유수 도시들이 U대회를 유치하려 하겠는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국력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의 모든 도시들은

전략으로서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경험하고 학습했던 소중한 기회였다.

유니버시아드는 광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작한 것이니 성공으로 끝을 내야 한다. 이것이 광주의 기질 아닌가. 나와 광주의 미래에 자만만 강했던 '하'된 광주가 그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 다시 출발선에서 광주가 맞이할 내일의 성공을 위해 시민의 뜻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나는 지금이 주저해서도 안 되고 늦춰서도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2013년 대회 유치활동을 통해 다져놓은 터전에 2015년 대회, 그리고 세계 속 광주를 심기 바란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으로서 광주 발전을 향한 이 중요한 시기에 마음이 조급하다.

<전남대 경영학부 4년>

KTX안에서 딸아이 돌봐준 간호사 정말 고마워

며칠전 KTX를 타고 서울에 갈 일이 있었다. KTX안에서 딸 아이가 체했는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심하게 울었다. 아침 식사를 한 것이 체한 듯했는데 KTX안이라 달리 뽀족한 수가 없어 아이를 달래기만 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해 객차와 객차 사이의 통로로 데리고 나갔더니 한 젊은 여성 승객이 다가와서는 자신은 한의사라며 아이를 좀 보겠다고 도와주었다.

그리고 마침 가지고 있는 소화제가 있다며 먹여주고 엄지 손가락을 따주었다. 또 걸치고 있던 슬을 벗어 바닥에 깔고 아이를 눕힌 뒤 등과 팔을 마사지해주었는데 10분쯤 지나자 아이가 큰 트림을 뱉더니 하더니 울음을 그쳤다.

나는 너무나 고맙다. 딸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난 것도 기뻐지만 자기 일도 아닌데 일부터 찾아와 돌봐주고 슬까지 벗어 바닥에 깔고 치료해준 한의사에게 너무나 고맙다.

아이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 세수시킨 뒤 자리로 돌아와 그 한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열차가 잠깐 정차한 사이 내린 듯 보이지 않았다. 평소 병원에서 보던 의사에게서는 느끼지 못한 고마움이 몰밀듯 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위급한 상황을 보고 자신의 일처럼 도와준 그에게서 봉사의 의미를 새삼 간직하게 됐다.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오미영·목포시 해안동

無 等 鼓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데도 에너지 과소비가 여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정부는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답으로 큰 차와 넓은 집, 대형 가전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업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모습'을 발표했다. 우선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소비 증가가 대형 가전과 중형차를 선호하는 소비행태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1975년 에너지 소비와 국내총생산(GDP)을 100으로 놓으면 2006년 에너지 소비는 740, GDP는 760으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차량을 포함한

수송용 에너지 소비는 100에서 1580으로 무려 15.8배나 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수송분야 에너지 과소비의 원인으로 최근 10년새 급증한 중대형 차량을 꼽았다. 2000cc 이상 중대형 승용차 시장점유율이 1995년 10%에서 2000년 17.7%, 2002년 34.

1%, 2006년 29.8%로 높게 유지되면서 에너지 절약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가정의 에너지 소비 증가도 주거면적 증가와 대형 가전 선호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25인치 이상 컬러 TV 시장점유율이 1995년 26.7%에서 2006년 65.7%로 높아졌고 500ℓ 이상 냉장고가 1995년 14%에서 2006년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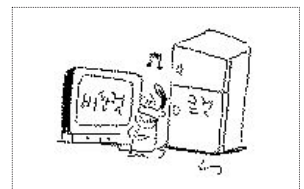
7%로 뛰는 등 큰 것, 비싼 것 위주로 가전 제품 시장이 재편됐다는 얘기다. 1인당 주거 면적이 1985년 11.3㎡에서 2005년 22.8㎡로 늘어난 것도 가정의 기본적인 에너지 소비 규모에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에너지요금의 경우 1990년 이후 휘발유 가격이 4배, 경유가 8배 올랐음에도 전기요금은 16년 새 40% 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에너지요금 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

고유가 고통은 곧 '한국인의 업보'다. 일리 있는 진단이 아닌가 싶다.

/김우승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한국인의 '업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		독자서비스센터 2200-551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경명지원국 (F A X 222-8005)	문화회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29	문 화 회 보 부 2200-626	광고미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 제 부 2200-616	여 령 매 배 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